



안녕? — 나의 핑크 블루

한 학기 한 권 읽기

■ ■ ■ 읽기 전 활동

1. 책 표지 앞면과 뒷면의 사진을 살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2.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 읽기 중 활동

1. 아기들의 방에는 왜 핑크 아니면 블루 두 가지 색깔의 물건만 있을까요?

2. “핑크!”하고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블루!”하고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3. “원래 그런 색은 없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4. 소녀와 소년이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의 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의 색깔과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색깔은 어떻게 다른가요?

5. 색 말고도 자라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네요. 무엇인가요?

6. 핑크를 좋아하는 할머니의 사진을 통해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7. 이 책에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을 찾아보세요.

8. 다음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해 보세요.

다음은 1978년 미국 패션잡지 <언쇼>에 실린 내용입니다.

“남자아이에게는 핑크가 더 어울립니다. 파랑은 연약하고 양중맞은 색이에요.

아들에게는 강하고 힘찬 느낌을 주는 핑크색 옷을 골라 주세요.”

다음은 2018년 한국의 가영이 엄마가 <베이비뉴스>에 고민을 상담한 내용입니다.

“아들이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남자아이에게 핑크색 옷을 입혀도 될까요?

친구들에게 놀림 받는 것도 걱정이지만 나중에 커서 여자 같은 남자가 될까 봐 고민입니다.”

도대체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똑같은 색이 남자아이의 색이었다가 여자아이의 색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말로 여자의 색, 남자의 색이 따로 있는 걸까요?

읽기 중 활동 + 도움말

1. 아기들은 어려서 직접 색을 고를 수 없어요. 아기들을 돌보는 어른들이 골라 준 색이에요. 어른들은 블루는 남자아이의 색이고 핑크는 여자아이의 색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또 물건을 팔고 있는 곳에서 고를 수 있는 색이 블루와 핑크 두 가지뿐이기도 하고요.
2. 큰 소리로 말해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핑크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블루는 항상 씩씩하고 웅감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책에서는 핑크와 블루에 온갖 느낌을 한데 섞어 표현했어요.
3. “핑크는 원래 여자아이의 색이고 블루는 원래 남자아이의 색이다.”라는 생각은 편견(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여자아이도 블루를 좋아할 수 있고 남자아이도 핑크를 좋아할 수 있어요.
5. 물건들이 많이 줄었어요. 자기가 직접 정말 좋아하는 물건들만 고르게 되었으니까요.
6. 흔히 핑크는 어린아이의 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핑크를 좋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쓰느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감출 필요는 전혀 없어요.
7. “누구도 우리에게 색을 정해 줄 수 없지요.” “세상에는 여자아이의 색도 남자아이의 색도 없다는 것어요.” “세상에는 핑크와 블루 말고 다른 색도 많다는 것어요.”
8. 오랫동안 사람들은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격도, 입는 옷도, 쓰는 물건도, 심지어 직업도 달라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핑크가 남자다운 색이었다가 갑자기 여자다운 색으로 바뀐 것처럼, 모두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는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남자다운 것도, 여자다운 것도 없답니다.

읽기 후 활동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왜 그 색을 좋아하나요?



